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박학다식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5월 3일(월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하***	학번		이름	
	학번	2017	이름	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고**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토의 내용</p> <p>1)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점을 가져다줄까?</p> <p>하***: 온라인 교육이 발달하게 되면서 강의 수강 방식이 편리해졌다. 또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오프라인 상점 이용 또한 어려워짐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식료품 배달 서비스와 같이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배달 주문만 하면 얼마지나지 않아 집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무실 출퇴근에 소모되는 비용, 운영 비용 기타 등등의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었다.</p> <p>지**: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이점, 사회적 이점을 느꼈다. 개인적인 이점은 통학생 신분으로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비율이 증가하고, 강의의 질이 단시간안에 가속되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이점으로 들 수 있다.</p> <p>사회적 이점은 택배와 배달서비스를 포함하여 불필요한 접촉도 없고, 단독으로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거주 환경에서 수령인의 성별을 추측할 수 없게 만들어 범죄 발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이점이 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사람을 보며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한국인의 공유문화 중 하나인 음식 공유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 개인 청결 및 위생 관리에 용이해졌다.</p> <p>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등 낮았던 청결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로 인해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손 씻기, 기침을 할 때 입을 막는 등의 청결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감지하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건강 관련 같은 맥락으로 마스크 착용도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했던 감기 등의 문제도 해결되는 이점을 볼 수 있다.</p> <p>그리고 또 다른 이점은 불필요한 관계에 대한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회식이나 필요치 않은 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자리 감소와 연관지어 불법 성매매나 유흥업소에 대한 방문을 줄일 수</p>							

있게 된다. 코로나의 감염경로를 모두가 막기 위해 불필요한 자리는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앞으로의 위험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 코로나로 인해 농업 부분에 대한 발달의 필요성을 느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 된 초반에 사람들은 불안감에 의해 계란, 통조림 등 식료품을 대량 구매하여 결국 식료품을 구하지 사람들이 생겨났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야외 생활에 대한 제한이 생길만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로 실내 재배 시설, 배양육 등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관광산업이 제한됨에 따라 관광지 지역경제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위험 상황에 대해 지자체에서 언택트 여행 프로그램 공모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 : 대다수의 국민층이 아닌, 수면 밑에 있던 취약계층의 문제들이 수면위로 화두되고 있으며, 개인 위생 관리와 불필요한 만남 등의 대유행의 시발점이 되는 일상 접촉을 관리 하는 것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건의될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표적으로, 재조명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문제는 집단감염이 빈번하지만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 목욕탕을 사례로 뽑을 수 있다. 코로나 시대에 목욕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가정내에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조치임을 사회 전체가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사회의 대다수가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에 따른 예방책과 조치가 빠르게 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다수의 사회가 인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큰 한걸음이 될 것이다.

고**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체온이 높은 경우에는 심할 경우 응급상황에서 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의료가 마련되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미국의 경우에는 약국이 활성화 되어 있어 상비약이 다양하게 있다. 의료적인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한국에 비해 미국이 더 접근성이 높다.> (팀원)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어 응급실을 갈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비상상황, 의료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어야한다. 이에 더불어 코로나19 키트를 제작해 개인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지**> 미국은 약국에 상비약은 물론 다양한 의료약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비약 구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

	<p>하다. 응급실에 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가정에서 해결할 수준의 상비약은 약국(24시 운영 제외)이외의 편의점에서라도 구매가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p>
--	--

2021년 5월 3일

참가자대표 : 하***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박학다식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5월 17일(월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하***	학번		이름	
	학번	2017	이름	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고**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장 지글러</p> <p>1) 기아는 자연도태인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p> <p>고** : 자연도태라는 단어의 등장은 철저히 기득권층들의 입장에서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이들이 말하는 자연도태는 점점 높아지는 인구가 적당히 조절되고 있는 스스로 과잉 생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논리는 상위 계층의 자기 합리화라고 본다. 이런 설명은 책에서 나타난 것 처럼 전형적인 유럽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 정당화다. 이해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기적인 말로 느껴진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닌 권리를 누리는자들의 주장일뿐이다.</p> <p>하*** : 책을 읽으며 놀란 부분이 있다. 지구는 현재보다 두 배나 많은 인구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아문제에대한 자세한 원인과 기아 상황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으니 저들은 왜 그리 굶주리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 또한 서양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듯 강한자가 살아남고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느꼈다. 자연도태라고 하기에는 지구촌의 일부는 식량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며 영양 과잉 질병을 앓고 일부는 영양실조로 굶주린다. 식량의 공급 방식이 보다 고루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싶다.</p> <p>지** : 기아문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방송 미디어 매체 통해 후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와 별반 비교되지 않게 여전히 기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책 읽으며 깨닫게 되었다. 기득권층의 인구절감은 기득권층의 우월주의에 빠진 잘못된 생각이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다. 애초부터</p>							

국가의 식량의 분배가 잘못되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세계적 협력기구가 필요하다. 평화보다는 세부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제 협약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2) 기아를 악용하는 국제기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기.

고** : 책에서 언급한 네슬레와 칠레 민주정부와의 일처럼 기업은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을 포기할 수 없어 사회정의를 배반하는 일이 생긴다. 모두의 평화,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모습보다는 각자 개인이 잘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만이 남아 결국 기아 문제는 계속 되는 것 같다. 이러한 기업의 협력 거부에는 국가적 위치를 지키기 위함도 있다고 느꼈다. 보이지 않는 나쁜 손처럼 기득권들은 이익을 좇기만 바쁘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마케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인 기아를 돕고 있다는 그 이미지 하나로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기업에게는 그저 이 문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것 같다.

하*** : 책에서 다룬 식품회사 네슬레에 대한 사례를 읽고 아이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제 관계 문제에 의해, 또는 정책적 이득을 더욱 중요시 여겨 아이들의 영양실조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또한 굶주림을 국가 테러의 무기로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었다. 북한에 경우 정권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추방하고, 굶주리게 한다는 것이다. 곡식재배기술도 발달 되었고, 식량은 세계인구의 2배 정도의 인구가 먹을 정도의 양이 존재함에도 국제적 경쟁과 정책에 따라 굶주림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 : 기아의 문제를 내전 상황 등으로 포장을 하고, 기업이 발생시킨 문제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며 의아했던 점은 지구가 제공하는 식량이 인구 2배 분량 이상의 여유가 있지만 식재료를 음식의 형태로 가공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기업의 이미지 등과 같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기아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 되어 보편적으로 문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5월 18일

참가자대표 : 하***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박학다식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5월 31일(월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하***	학번		이름	
	학번	2017	이름	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고**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 추적단 불꽃</p> <p>1) n번방 사건에 대한 개인 의견 나누기</p> <p>고**: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관심을 갖던 대상자들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예전에는 강간, 데이트폭력 등의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도 했고 주로 관심은 여성들이 많이 했었다. 하지만 n번방의 사건이 일어나고나서는 대다수가 여성이었다면 이제는 남녀노소가 주의를 기울였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n번방 사건의 강도는 기존에 있던 성범죄의 강도와는 다른 어느 인간적인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된다. 비인간적이고 보통의 성범죄와는 질이 다르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씩씩했다. 추적단 불꽃이 n번방을 알고나서 이들을 잡기 위해 계속 방에서 그 행각을 보면서 겪었던 심리적 충격을 보며 나 또한 그들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다. 나도 과거에 노예와 같은 성범죄 동영상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런데도 이 불꽃은 계속 끊임없이 보고 조사했다는 것에 대단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지 않았을까 싶다. 불꽃이 이야기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함께 자원봉사했던 오빠가 그 n번방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 동영상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소름끼쳤다. 정말 사람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 유흥에 한하여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가해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강력한 처벌로도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p> <p>하*** : 아동협박, 지인능욕, 아동성착취 등의 범죄가 이토록 잔혹하게 유포되고, 그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느꼈다.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은 아동 성폭행 영상과 화장실이나 여성 자취방 불법 촬영물이 넘쳐난다는 것이 믿겨지는가? 이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아동과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며 지속적인 협박을 하며 더욱 심한 단계의 성착취를 진행한다. 가장 슬프고도 분노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가해자 집단과 그 영상을 즐기는 2차 가해자 집단은 소수 집단도 아니며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반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추</p>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그 사고구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먼 미래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이버범죄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 n번방이 기사로 나가게 되며 음지의 범죄가 드디어 양지로 올라왔다고 생각했다. 성범죄 카르텔에 대해 원래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잔혹한 상태 일줄은 상상도 못했다. 단순히 성범죄가 아니라 인간취급을 하지 않는 범죄자들의 모습들은...인류애를 상실하게 할 정도였다. 추적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책에서 세부적인 묘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진을 합성으로 하는 지인능욕부터 스너프필름과 같이 사람을 동등한 인격을 보지 않는 태도는 3자의 입장에서선 어이가 없었다. N번방과 동등하다고 할 순 없지만 기타 sns에서 단어를 조절하여 검색하면 여러 얼굴을 가진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이 나오는 것을 다른 책을 보며 알게되었다. 이들 중엔 죽은 사람도 존재하지만, 왜 그녀들은 인터넷 세상에선 죽지 못하는 상태인지, 법적 조치가 왜 가해지지 않는지 여전히 궁금하다. 하물며 인터넷 기사를 보아도 기사본문 옆 광고 게시글엔 '최음제'와 같은 '돼지발정제', 불법포르노적인 게시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있다. SNS는 특정 단어를 검색해야 나오는 구조이지만, 인터넷 기사는 응당 나이,성별 구분없이 보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접촉이 자유롭다는 건, 이번 검거를 통한 텔레그램 n번방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n번방이 존재한다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다. 여성과 남성 이분법적인 성별로 보았을 때, 한 성별의 몰락을 바라는 구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동등한 인격이 아닌 한참 밑바닥의 생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2) 실생활 중 주변에서 n번방과 관련된 성범죄 이용사례를 본 적 있는지 얘기

고**: n번방과 관련된 성범죄는 아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범죄행각들이 있었다. 수학여행 중 여학생의 다리를 찍어 공유를 했던 남학생이 있었다. 사진에 찍힌 여학생은 놀라서 지우라고 했고 다른 남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일이 있다.

하***: n번방 관련된 성범죄는 아니지만 주변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많다. 성폭행을 당했던 지인들도 있었고, 시선강간은 대한민국에서 안받아본 여성이 없을 정도이다. 사이버 성범죄를 목격했던 것은 트위터나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오는 불법촬영물이었다. 신고하려고 음란물들이 모여있다는 사이트나 트위터를 찾아본 것이었는데 당시 예상한 것보다 더욱 심한 행태의 영상물들이 넘쳐난다는 것에 답답함과 씁쓸함을 느꼈다. 신고를 해도 그 수많은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을 느

켰다.

지** : 주변에 지인능욕 사진을 당한 사람,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 찍힌 사람, 그것을 빌미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람, 건너편 집에서 찍은 자취방 등의 불법촬영물과 성범죄 사례는 주변에 속상할 정도로 흔하게 다들 경험해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화장실 벽면에 뚫려있는 의심스러운 구멍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성범죄는 더이상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보다는 '내가 걸리지 않아서 다른 여성이 희생되었다.' 라고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용변처리와 같은 사소한 범위까지 성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와있고 더이상 이전과 같은 무경험은 없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사례들만 해도 주변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정화하여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주변에서 한 다리 걸쳐서 한번씩은 겪은 일들이다. 자연스러운 모든 행위들이 피해여성들 및 여성들에겐 일상이 아닌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회구조를 보며... 어떻게 이런 범죄행위들을 소비하는 남성들이 많아졌는지, 어쩌면 이것이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되었다. 10년전까지만 해도 화장실에 가기 두려운 사회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내부 칸 벽면엔 구멍이 뚫려있기 시작하였다. 사회구조 및 세대들의 변화에 무엇인가 작용한 것이라면...지금 잡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도, 우리도, 이전의 세대들 모두 고통받는 구조가 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21년 5월 31일

참가자대표 : 하***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박학다식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6월 6일(일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하***	학번		이름	
	학번	2017	이름	지**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고**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은밀한 호황 - 김기태, 하어영</p> <p>1)잘못된 성 지식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 나누기</p> <p>고** : 미디어에서 연예인들을 비롯해 모든 일반인들은 야동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말이다. 이 야한동영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걸까? 불법촬영을 통한 동영상들이 아닐까 싶다. 미디어에서 야동은 그냥 우리 생활에 있는 하나의 문화이고 유흥으로만 보여진다. 야동순재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야동순재라는 별명만 봐도 우리는 이 동영상에 그렇게 큰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잘못된 성 지식의 위험성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동영상 속 여성의 태도만 봐도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결국 즐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컨셉으로 찍는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사람들은 거부해도 좋은 것이 아닐까와 같은 위험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p> <p>하*** : 리얼돌과 데이트 폭력에 대해 말하고싶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실리콘 인형 형태의 성인용품을 말한다. 리얼돌의 실제모양은 키가 135cm로 누가봐도 아동의 키와 비슷하다고 한다. 리얼돌이 생겨난 것의 기저에는 여성의 몸 전체를 그저 성기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비뚤어진 성욕이 낳은 잘못된 문화가 아닌가 싶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나날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하루에도 사회 기사면을 보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자신의 연인을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않았을것이다.</p> <p>지** :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예전과 같이 구전으로,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일차 방송국의 검열을 거친 성인 콘텐츠 소비는 사라졌다고 봐야한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경우, 성 지식은 보통 인터넷과 기타 매체를 통해 배우게 되며 이에 대한 검열 및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성지식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며 배우게 된다. ‘BDSM’, ‘SM’ 등 음지의 문화에 있던 이상 성욕들이 양지로 슬금슬금 걸어나오게 되면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없는 어린 세대들은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믿으며 더 자극적</p>							

이고, 더 불분명한 것을 원하게 된다. 한번 새겨진 잘못된 성지식은 고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그러는 동안 이상성욕으로 인한 여성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치관을 기초로한 성관계에서 동등한 권력관계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들 공감할 것이다. 여성은 성관계에 있어 조심스럽고, 수줍어야 하며 남성이 당연히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암암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 파트너가 극단적으로 스니프 필름과 같은 이상성욕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단기간으로 본다면 단순히 잘못된 성지식은 질병, 질환을 남길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깊게 보게 된다면 안위와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다분히 높다고 생각한다.

2)성매매 업소 문제 해결 위한 방안이 있을지 토의

고** : 성매매 업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 먼저 당연히 성매매 업소를 없애야 하고 이 업소와 관련된 공급자들과 수요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없애는 움직임이 있는듯 하나 과연 없어지고 있는가 의문이 생긴다. 극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징역과 벌금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법의 역할이 범자에게 벌을 주는 역할도 하는 반면 예방의 역할도 한다. 이처럼 높은 처벌을 명시하여 선불리 성매매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하*** : 성매매 업소가 문제라는 것 인식조차 없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 같다. 신체를 재화로 여기며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라면 인신매매와 노예제도가 왜 사라진 것인가. 이들 또한 신체를 재화로 여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사라진 제도이다. 신체를 재화로 여기게 되는 것은 인권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회구성원 모두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 : 인간의 3대 욕구는 식욕, 수면욕, 배설욕 이다. 세 개는 하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욕구 해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성욕 해소를 위한 성매매업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필수욕구와 아무런 연결점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포주와 관련이 있는 여성이든 그렇지 않은 일방적 착취를 당한 여성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검거로 인해 성매매업소의 폐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성매매업소 피해여성을 양지의 사회로 온전히 돌려보낼 수 있기까지의 완벽에 가까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밀한 호황'에선 자발적인 피해여성은 없다고 한다. 시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번이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업소, 포주, 피해여성들의 안위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위해 처벌과 수색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을 해당 장소로부터 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든 분리시켜 사회

	<p>로 다시 돌려내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켜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선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범죄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 적어도 여성들은 여성의 편을 들고, 계속해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p>
--	---

2021년 6월 6일

참가자대표 : 하***